

현대신학의 유아세레 논쟁 —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

전성용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의 빗발치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 이후 세레론이 현대신학의 주요문제가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I. 서 론

- II. 유아세레의 역사
- III. 주석적 고찰
- IV. 신학적 고찰
- V. 바르트에 대한 평가들
- VI. 결론

I. 서 론

칼 바르트는 세레를 현대신학에서 토론의 핵심 주제로 만든 신학자이다. 그에 의하여 야기된 유아세레논쟁은 예레미야스(J. Jermias)의 주장을 고려한다면 기독교 역사상 세번째 유아세레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첫번째는 A.D. 4세기에 나찌안 주스의 그레고리(Gregory of Nazianzus)의 호소에 의해서 발생한 유아세레 연기사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유아세레를 확립하였으며, 두번째는 종교개혁시대에 재세례파에 의해서 제기된 반유아세레논쟁으로서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진압되었다. 그리고 세번째로 바르트는 1943년에 "교회회의 세레론"에서 반유아세레론을 천명함으로써 유아세레론자들의

그러나 바르트가 세례본을 중요하게 다루거나 유아세례를 비판한 최초의 현대신학자는 아니다. 1927년까지는 신약성서에는 유아세례에 대한 표현이 없으므로 초대교회에서는 유아세례가 시행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1928년 외프케(A. Oepke)가 그리스이교도들이 소년소녀들을 일정한 의식에 따라 세례에 참가시키고 동방종교에서 소아를 성별한 예가 적지 않다고 예증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유아세례 실시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같은 해에 라이폴트(J. Leipoldt)는 신약성서 중에 소아들에 대한 구절들이 초대교회의 유아세례 실시를 암시한다고 주장했으며 다음해 빈디쉬(H. Windisch)는 행 2 : 38, 16 : 15, 53 고전 1 : 16 등의 성서적 근거로부터 유아세례의 증거를 찾으려 했다.

그 후 1937년 쿨만(O. Culmann)은 행 8 : 36에 있는 구스내시에 대한 빌립의 말 무엇이 '막으리오'와 막 10 : 14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말라'는 말이 동일함을 근거로 초대교회에서의 유아세례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같은 해 브룬너(E. Brunner)는 옘살라(Uppsala) 대학의 Olaus 장연에서 유아세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현대의 신이교도들의 대부분과 무신론적 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유아로서 세례받았다. 그것에 대해 그들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세례의 은총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들이 세례 받았는 지를 알 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조차도 않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그들이 세례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는 유아세례가 문제성있는 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신앙의 확신없는 관습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주장 즉 신앙없이 성례전 없다 (nullum sacramentum sine fide)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그리하여 브룬너는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현대의 유아세례 실시는 요컨대 하나의 스캔달(scandalous)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신약성서의 성례전은 하나

님이 인간에게 “예”(Yes)라고 말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예”(Yes)라고 말하는 쌍방향적(bifrontal)인 사건이므로 세례는 은총의 행위로서만 아니라 은총의 행위에서 기인하는 고백의 행위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브룬너는 유아세례의 문제성을 지적하고 비판하였을 뿐 명백하게 반유아세례론자가 되지는 않았다.

다음 해인 1938년에 예레미야스는 “초대교회는 유아세례를 베풀었는가?”에서 고대교회 문헌을 철저히 고증하였으며 막 10:13이하를 근거로 하여 이것이 로마에서 A.D. 60년경 유아세례를 베풀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쿨만과 예레미야스를 중심으로 하여 초대교회의 유아세례 실시가능성을 주장함으로써 유아세례를 옹호하는 입장과 다른 한편으로는 브룬너에 의해서 유아세례의 문제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터져나온 바르트의 반 유아세례론은 격렬한 유아세례논쟁을 촉발하게 되었다. 바르트가 처음으로 유아 세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한 것은 1939년 이었다. 그는 덴마크에서의 강연에서 유아세례를 비판함으로써 청중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1943년 5월 7일 그바트(Gwatt) 신학생들을 위한 강연 “교회의 세례론”에서 처음으로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믿는자의 세례를 실시할 것을 명백히 주장하였다. 같은 해에 출판된 책에서 세례는 인간에게 원인적으로 구원을 가져오지 않았으며 인식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갱신의 상징적인 표현에 의해 그의 구원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세례는 우리의 구원의 표현, 도장, 표지, 복사, 상징이다.” 그 결과 그는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논쟁을 하였고 세례받는 자는 세례의 수동적 대상이 되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동반자가 되어서 자유롭게 결단하고 자유롭게 고백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르트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세례를 변호하는 표준적인 신학자가 되었으며 쿨만에 의하면 유아세례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되었다. 바르트의 반 유아세례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한 충격을 주었으며 그 후에 이 주제에 대한 많은 저술들이 쏟아져 나왔다. 바르트에 대한 가장 유명하고도 즉각적인 반응은 쿨만의 응답이었다. 쿨만의 응답은 1948년 “신약의 세례론”으로 출판되었다.

쿨만은 바르트처럼 세례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찾는다. 그의 속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세례를 완성시킨 것이며 이 세례의 은총은 개인의 신앙적 결단이나 인식과 관계없이 제공된다는 의미에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였다. 쿨만은 기독교 세례를 인간과 전적으로 무관한 신성한 행위로 이해한다. 이 신성한 행위에 인간들은 다만 감사하는 믿음의 반응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지 인식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역(New work of Christ)이다. 그리하여 쿨만은 인식이라는 관념이 세례에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바르트의 주장을 거부하였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그것 자체는 은총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마치 군대에 젊은이가 입대하면 자동적으로 군복을 입는 것을 수반하는 것과 같다.

쿨만은 바르트와 같이 세례에서의 믿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쿨만에게는 세례에 선행하는 믿음은 세례사건의 구성적 요소는 아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안에서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의 행위이며 세례받는 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세례사건의 일차적 행위가 아니라 이차적 행위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앙고백은 세례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실서일 뿐이라고 보았다. 쿨만은 세례에서 인간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바르트의 반 유아세례론을 거부하고 유아세례를 옹호하였다.

세례에 관한 신학적 논쟁에서 바르트의 견해가 신자의 세례의 표준적인 신학적 변본이 되었다면 쿨만의 견해는 사실상 유아세례의 표준적인 신학적 변본이 되었다. 그러나 유아세례 지지자들 가운데서 신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 것은 예레미야스였다. 그는 바르트를 반대하기 위하여 1938년에 발표했던 책을 증보하여 1949년에 재판을 출판하였으며 이것은 1958년에 최종적인 형태로 출판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가족공식'(oikos formula)의 역사적 연구, 신앙의 논쟁적 구절들, 기독교세례와

개종자 세례의 유사성을, 초기 4세기 까지의 유아세례 실시에 빛을 던져주는 고대 비문들의 진술로부터의 증거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도시대에 이미 유아세례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가족-공식'은 지금까지 유아세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나온 어떤 이론보다도 성서 시대에 유아세례를 실시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이것은 스타우퍼의 연구에 힘입은 것이었다. 즉 고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연대성은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회심은 온 가족의 구원을 의미하고 신앙에서 온 가족의 세례에는 유아도 포함된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바르트가 촉발한 유아세례논쟁은 바르트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바르트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부터의 메아리도 들게 되었다. 영국 침례교인들에 의해 나온 책들로서 길모어(A. Gilmore)가 편집한 *A Fresh Attempt to Understand the Rite in Terms of Scripture, History and Theology* (1959)와 비즐리-머레이(Beasley-Murray)의 "신약의 세례" (1962) 등이 있다. 길모어가 편집한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신자의 세례를 위한 논증들이며 비즐리-머레이의 책은 이 문제와 관계되는 신약 본문에 대해 검토한 책이다. 그는 신약에서 세례에 대한 증거들을 조사함으로써 쿨만과 예레미야스 및 유아세례론자들에게 대답하려고 하였는데 세례는 은총과 신앙을 결합시키는 진제 복음을 포함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였다.

예레미야스에 대한 응답으로 나온 알란트(Kurt Aland)의 "신약과 고대 교회의 유아세례"는 예레미야스와 같은 자료들을 사용하였으나 아주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알란트는 '가족-공식', 신약에서 보통 인용되는 구절들, 초기 기독교 작가들, 기독교 비문들의 증거들의 유아세례가 3세기 초 이전에 실시되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지 못한다고 논증하였다. "유아세례에 대한 최초의 명백한 증거는 3세기 초반의 중간쯤에 나타난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스는 "Nochmals : Die Anfänge der Kindertaufe"에서 하나 하나 다시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논쟁의 결과 한 가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세례실시의 증거에 대한 역사적인 조사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유아세례문제는 오히려 세례신학의 영역에 속하는 조직신학의 문제임이 명백해 졌다.

잉글랜드(Stephan J. England)는 현대의 세례논쟁에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한 두 현대신학자들이 한편에는 바르트요 다른 한편에는 콜만이라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이 두 신학자들이 결론은 다를지라도 그들이 제시한 바는 오늘날 세례에 관한 세계적인 범위의 논쟁을 위해 한량없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가지인데 첫째로, 신약은 기독교세례의 신학과 시행을 위한 규범이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신념이요, 둘째로, 그들은 둘 다 유아세례문제에 연관된 신앙과 세례의 관계라고하는 세례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잉글랜드 자신은 콜만을 반대하고 바르트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에큐메니칼 운동에서의 세례에 대한 연구에 합류하도록 촉구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르트에 의해 야기된 현대의 세례 논쟁을 개괄하였다. 바르트는 1968년에 출판된 교회교의학 IX/4 세례론에서 지금까지의 세례 논쟁의 쟁점들을 수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세례론의 수립을 시도하였다. 그것을 성령론적 세례론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바르트의 신사고(新思考)의 표출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물세례의 근거로서의 성령세례를 말하고 이 성령세례는 하나님의 행동이며 이 하나님의 행동인 성령세례에 대한 인간의 복종의 행동이 물세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신앙의 결단의 행동인 물세례는 의식적인 신자의 세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그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신자의 세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활천 지면에서는 바르트의 세례론 가운데서 유아세례 문제만을 다루고자 한다. 유아세례논쟁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함께 바르트 자신의 주장을 성서 주석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진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유아세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증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신학자들의 평가와 토론을 검토함으로써 유아세례 논쟁의 신학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차호에 계속> **✎**

원래 원고에는 자세한 각주가 있으나 지면 사정으로 생략했음. - 편집자 주 -